

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23년도 「혁신성장펀드」 조성 계획

2023. 2. 22.

금 융 위 원 회
한 국 산 업 은 행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기본 운영전략 및 목표	2
III. 세부 조성계획	3
IV. 기존 정책펀드 대비 개선사항	7
V. 향후 일정	9

I. 추진 배경

(1)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중

→ 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중요성 증대

-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*하고 있으며,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저하가 구조화될 위험

*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(OECD 장기재정전망보고서, 2021) :
한국(%): ('07~'20) 2.8 → ('20~'30^F) 1.9 → ('30~'60^F) 0.8

-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*, 혁신적 벤처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

* [예] 新성장 4.0 분야('22.12월) : 3대 분야(新기술, 新일상, 新시장) 15대 과제
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('22.10월) :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차세대 원자력, 첨단 모빌리티, 첨단바이오, 우주항공·해양, 수소, 사이버보안, AI, 차세대통신, 첨단로봇, 양자

- 전통적인 융자금융은 회수가능성을 중시하므로 신산업, 벤처 기업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렵기 때문
-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성장성 높은 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필요

(2) 그러나,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 위축 우려

- '23년에는 고물가, 고금리, 세계경기 둔화 등 복합위기의 여파로 수출, 설비투자 등이 위축되며 성장률 둔화* 전망

* 韓 GDP성장률(% , 한은) : ('21)4.1 ('22^e)2.6 ('23^e)1.7 [설비투자 △3.1, 수출 0.7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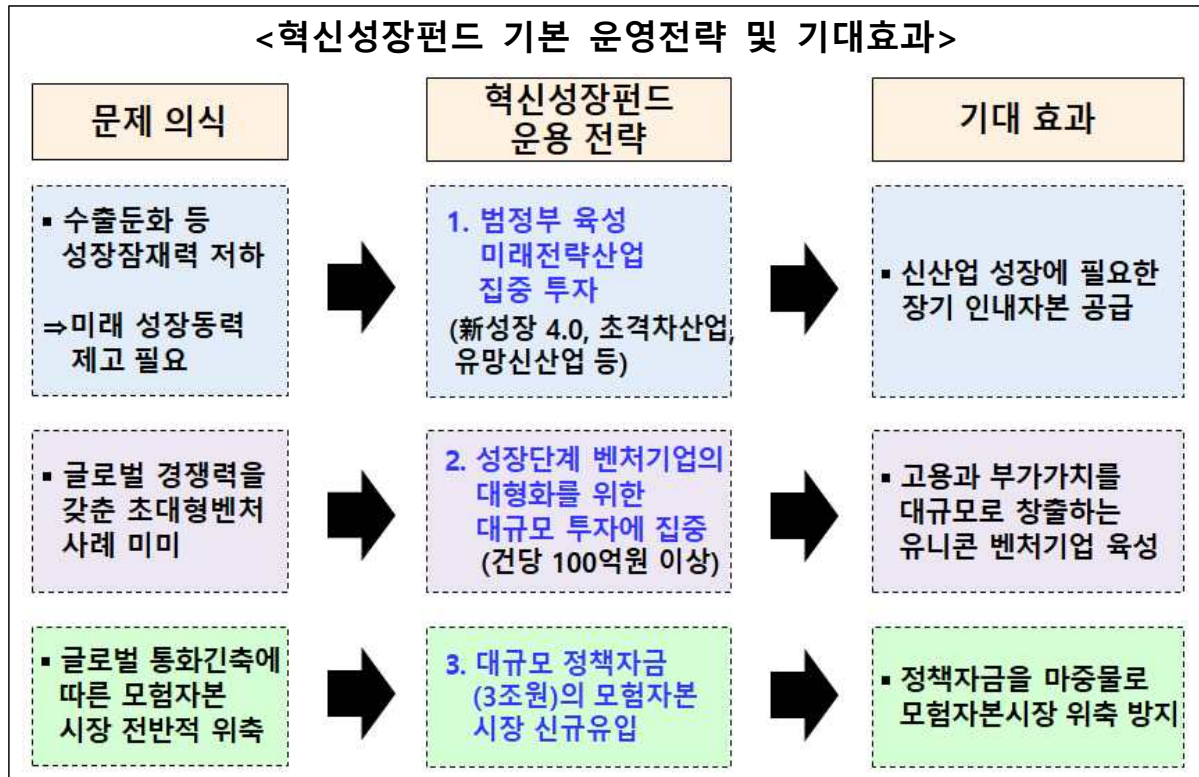
- 경기둔화로 모험자본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벤처투자 규모가 국내·외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* 예상

* 국내 벤처투자금액(조원, 중기부) : ('18)3.4 ('19)4.3 ('20)4.3 ('21)7.7 ('22)6.8(△11.9%)

*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(CB Insight) : ('21)6,384억\$ → ('22)4,141억\$(△34.9%)

⇒ 최근의 성장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지원,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필요

II. 혁신성장펀드의 기본 운영전략 및 목표



①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지원

- 新성장 4.0, 글로벌 초격차산업*, 미래유망산업**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성장잠재력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

* 우리기업이 세계 1위를 다투는 高부가 주력산업분야(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등)

** 현재는 미약하나 향후 시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분야(바이오헬스, 수소, 디지털 등)

②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벤처 등장 지원

- 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'대규모 벤처투자'에 집중함으로써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니콘기업 성장 촉진

③ 모험자본 시장 위축 방지를 위한 대규모 마중물자금 공급

- 대규모 정책마중물 자금 공급*을 통해 민간자금의 매칭 출자를 유도하여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견인

* 정책자금 총 0.9조원(재정 0.3조원, 산은 0.6조원) 투입 → 민간자금 매칭(2.1조원 이상) 통해 3조원 이상 모험자본 결성

Ⅲ. 세부 조성계획

1 조성 규모 : 총 3조원 (향후 5년간 총 15조원)

-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 → 혁신산업펀드 조성(1.5조원)
-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 → 성장지원펀드 조성(1.5조원)

가. 혁신산업 펀드 : 총 1.5조원

- (조성목적) 혁신성장공동기준* 분야 및 新성장 4.0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 지원

*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·신산업 품목군 분야 (9개 테마 284개 품목) → 해당분야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으로 집중 공급

- (출자구조) 재정(2000억), 산은(3000억), 민간출자자(1조원)

① 재정모펀드 : 총 2,000억원 (전담 모펀드운용사 1개 공모선정)

- 모펀드 운용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

※ 세부적인 모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2월중 별도공고(산업은행)

② 자펀드 : 총 1.5조원 (모펀드 출자금 + 산은 및 민간출자자)

- 산은 및 모펀드 운용사가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모펀드 자금을 운영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 (☞[참고] 출자분야별 상세 출자계획(안))

※ 세부적인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4월중 별도공고(산업은행 및 모펀드운용사)

- 자펀드 결성단계에서 산업은행(3,000억원) 및 민간 출자자 (10,000억원+@)가 자펀드에 추가로 출자
- 펀드운영시 민간 자율성을 높여(☞상세내용 7p) 민간 출자자 참여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비율을 축소('22년 뉴딜펀드 15% → 13.3%)

나. 성장지원 펀드 : 총 1.5조원

- (조성목적)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‘성장 중·후기 단계’ 투자에 집중하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창출 촉진

* 창업(최초투자) - 성장단계(후속투자)를 넘어 대규모 추가 후속투자가 필요한 단계 : 통상적인 VC는 중소형 투자 위주로 운영돼 대규모 투자수요 충족이 어려움

- (출자구조) 재정(1000억), 산은(3000억), 민간출자자(1.1조원)

① 재정모펀드 : 총 1,000억원 (전담 모펀드운용사 1개 공모선정)

- 모펀드 운용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

※ 세부적인 모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2월중 별도공고(산업은행)

② 자펀드 : 총 1.5조원 (모펀드 출자금 + 산은 및 민간출자자)

- 산은 및 모펀드 운용사가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모펀드 자금을 운영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 ([☞\[참고\] 출자분야별 상세 출자계획\(안\)](#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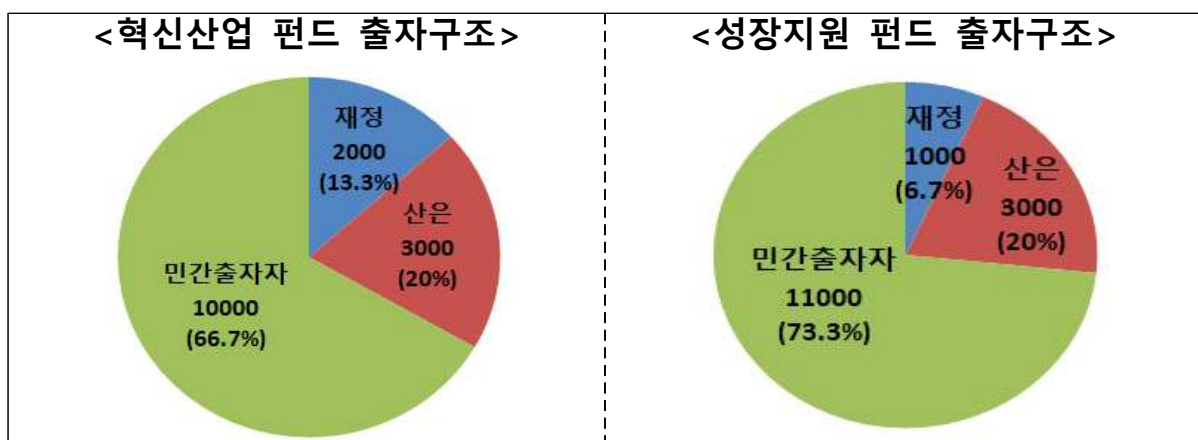
※ 세부적인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4월중 별도공고(산업은행 및 모펀드운용사)

- 자펀드 결성단계에서 산업은행(3,000억원) 및 민간 출자자(11,000억원+@)가 자펀드에 추가로 출자

- 대형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펀드 규모를 대규모(펀드당 5,000억원 내외)로 조성

* (cf) 주요 정책펀드 자펀드별 평균결성금액 : (정책뉴딜) 1,234억, (혁신모험)1,801억

- 투자분야 제한이 없어 민간투자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감안해 재정출자비중을 보다 축소(6.7%)



2 투자 대상

- **주목적 투자대상***을 사전에 정하는 기존의 출자방식과 함께, **민간의 투자대상 선정 자율성을 높인 매칭출자 방식을 도입해 병행 운영**

*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미래신산업 지원(혁신산업) 및 벤처기업의 스케일업(성장지원)

가. 혁신산업 펀드 (총 1.5조원)

① 혁신산업 일반 분야(총 1.26조원 결성추진) : ①, ②, ③을 충족

- ① 혁신성장공동기준*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% 이상을 투자

* 혁신성장공동기준이 국가중점전략산업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기준을 대폭 개편(신성장 4.0,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등 반영)한 신기준 마련

- ② '신성장 4.0' 또는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中 '글로벌 초격차 산업 및 미래유망산업' 분야에 정책출자금액 이상*을 투자

* 자펀드별 약 36% 이상(자펀드 결성액 중 '재정+산은 출자금액'을 합친 금액의 비율)

- 의무투자비율 설정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협의한 정부 부처 중점육성분야에 투자자금 집중공급 가능

<참고 : 신성장 4.0,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 현황>

구분	세부 산업현황
新성장 4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新기술) 미래모빌리티, 우주탐사, 양자과학기술, 미래의료, 에너지신기술 ■ (新일상) 내삶속의디지털, 차세대물류, 탄소중립도시, 스마트농어업, 스마트그리드 ■ (新시장) 전략산업No1, 바이오혁신, K-컬처융합관광, 한국판디즈니, 빅딜수주
초격차	■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미래차, 원전
미래 유망산업	■ 바이오헬스, 나노소재, 수소생태계, ICT신산업, 미디어/콘텐츠, 해양수산/국토교통/농식품 신산업, 항공우주, 탄소소재, 방산, 양자

※ 상세 분류는 「신성장 4.0전략 추진계획(22.12.19, 기재부 보도자료)」, 「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(22.12.26, 금융위 보도자료)」 참조

- ③ 중소·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% 이상을 투자

② 매칭출자 분야(총 2,400억 결성 추진)

-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가 혁신산업 펀드의 출자 목적에 부합*하는 경우, 모펀드에서 매칭출자

* 정책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

나. 성장지원 펀드 (총 1.5조원)

① 성장지원 일반 분야(총 1.0조원 결성추진) : ①, ②를 충족

- ①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단계 중소·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% 이상을 투자
- ② 투자 전 기업가치(Pre-Money Value)가 500억원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% 이상을 투자

<참고 : '투자 전 기업가치(Pre-Money Value)'의 개념>

◇ VC·PE가 신규투자를 하기 전에 책정하는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평가가치

◇ 통상 장부가치보다는 기업의 미래성장가치(up-side)를 기준으로 책정

→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장지원 자펀드의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투자건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실사·자문 의무 부여 예정

- 잠재성장가치가 높아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 기존 벤처펀드와 차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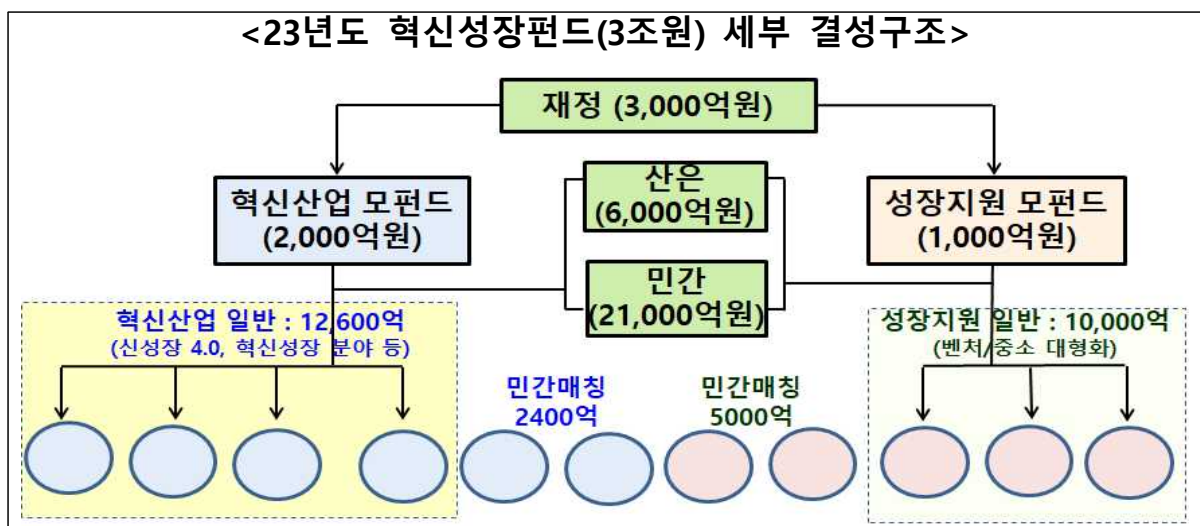
② 매칭출자 분야(총 0.5조원 결성 추진)

-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가 성장지원 모펀드의 출자 목적에 부합*하는 경우, 모펀드 및 산은에서 매칭출자

* 정책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 and 투자 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

- 성장지원 펀드의 경우 산업분야 제한이 없어 민간운용사 재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,

- 매칭출자 비중(33%)을 혁신산업 펀드(16%)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



IV. 기존 정책펀드 대비 개선사항

- **범부처 산업정책을 반영**하고, **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현**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**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극복**

① 재정 사용방식 효율화

- **(기존 정책펀드)** 재정출자 비중*이 높고, 재정출자 금액의 상당부분을 민간출자자 손실보전을 위한 후순위 재원**으로 사용

* (예) 소부장펀드 : 49%, 뉴딜펀드 : 15% ** (예) 뉴딜펀드 : 50% 내외

→ 한정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, 민간자금을 모험자본 시장 육성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

- **(혁신성장펀드)**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*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%로 축소

* 당초 결성목표 대비 130% 이상으로 펀드를 결성하고,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민간출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운용사에 초과성과보수 지급

-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(혁신산업 펀드)로 한정하고, 재정출자액 중 후순위 비중도 10%~15%로 대폭 축소

→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큰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모험자본 시장 육성효과 극대화

② 시장보완 분야인 대규모 벤처펀드 구성에 집중(=성장지원펀드)

- **(기존 정책펀드)** 민간 VC 시장이 상당부분 조성된 창업 및 성장초기 영역 위주로 출자

→ 민간자금이 부족해 역할이 필요한 대형화 지원 투자는 미미

- **(혁신성장펀드)** 성장지원 펀드를 통해 시장형성이 부족한 성장 후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투자에 집중*

* 자펀드 결성규모를 확대(펀드당 5,000억)하고, 미래성장가치(기업가치 500억 이상)가 높은 예비유니콘 기업에 집중투자하도록 하여 대형투자 딜 발굴 유도

→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벤처 육성기능 강화

③ 해외자본 유치 인센티브 확대

- (기존 정책펀드)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부재
→ 통화긴축기 자본시장 침체를 보완할 외부자본 유입 어려움
- (혁신성장펀드) 자펀드 운용사가 해외출자를 유치하는 경우, 성과보수 지급시 우대*하여 운용사의 해외자본 유치 유인을 강화
* 민간출자자 모집액 성과 평가시 해외출자자 모집액은 110%로 가중치 부여
→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민간 모험자본 경색 우려를 완화하고, 혁신적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운용전략 모색 유도

④ 모펀드 운용권한을 민간운용사에 개방

- (기존 정책펀드) 모펀드 운영권한을 특정 운용사에 일임
→ 역량 있는 민간 모펀드운용사 등장기회 제약
- (혁신성장펀드) 모펀드 운용사 일반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운용사에게 정책모펀드 운영기회를 부여
→ 민간모펀드 육성을 통해 향후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모험자본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인

⑤ 자펀드 운용사의 운용자율성 확대

- (기존 정책펀드) 모펀드가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여 출자분야를 공고하고 이에 응모한 운용사에만 출자
→ 투자분야를 정부가 사전에 지정하여 민간 운용사의 자율성을 낮추고 다양한 투자대상 발굴 기회가 제약되는 측면
- (혁신성장펀드)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가 매칭출자 지원*
* 전체 펀드결성목표액의 약 25%(7,400억원)을 매칭출자 방식으로 결성 추진
→ 정부의 출자공고 내용에 제약받지 않고 운용사가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을 폭넓게 정할 수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 기대

IV. 향후 일정

- ① **(모펀드 결성)**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(2월중, 산은) 및 운용사 선정(3월)를 거쳐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결성('23.5월)
- ② **(자펀드 결성)** 모펀드 운용사 선정 직후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계획 확정 및 운용사 모집공고 개시('23.4월말)
 - 자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('23.6월초)
- ③ **(자펀드 투자집행 개시)** 민간출자자 모집을 거쳐 자펀드 결성을 완료('23.7~12월)하고, 연내 투자집행 개시

세부 추진과제	추진일정	수행기관
---------	------	------

① 「혁신성장펀드」 母펀드 결성

▶ 모펀드 민간 운용사 모집공고	2월중	산은
▶ 모펀드 민간 운용사 선정	3월말	산은
▶ 정부의 산은 앞 증거	5월초	정부(금융위)
▶ 모펀드 결성	5월초	산은 모펀드운용사

② 「혁신성장펀드」 子펀드 결성

▶ 모펀드별 운영위원회 개최	4월말	산은 모펀드운용사
▶ 자펀드 민간 운용사 모집공고	4월말	
▶ 자펀드 민간 운용사 선정	6월초	
▶ 민간출자자 모집 및 자펀드 결성	6~12월	자펀드운용사
▶ 자펀드 투자개시	금년중	

참고

「혁신성장펀드」 출자분야별 상세 출자계획(안)

(단위: 억 원)

분야		모펀드 운용	정책자금 출자(예정)			총조성목표	정책출자 비중
			재정	산은	계		
혁신 산업	혁신산업 일반	민간 운용사A	1,536	3,000	4,536	12,600	36.0%
	매칭		464	-	464	2,400	19.3%
소계			2,000	3,000	5,000	15,000	33.3%
성장 지원	성장지원 일반	민간 운용사B	300	2,900	3,200	10,000	32.0%
	매칭		700	100	800	5,000	16.0%
소계			1,000	3,000	4,000	15,000	26.7%
합계			3,000	6,000	9,000	30,000	30.0%